

과기정통부, 제70차 IAEA 총회서 대한민국 미래 원자력 혁신 비전 제시

- 7대 SEED·K-문샷으로 첨단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과 미래시장 창출 추진
- 10월 한국 개최 IAEA 원자력 장관회의로 미래 원자력 국제협력 논의 이어가

【관련 국정과제】 26-4.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으로 기술주권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70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현지시간 15일(화)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방향과 주요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구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난 70년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이끌어 온 IAEA의 역할과 성과를 재조명했다. 또한 원자력과 함께 성장해 온 대한민국의 여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70년을 향해 미래 원자력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구 차관은 원자력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로 보고,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 확충과 미래 원자력 혁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SMR 특별법을 기반으로 혁신형 SMR(i-SMR) 개발과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K-문샷의 일환으로 원자력과 조선·해양 기술을 결합한 SMR 선박 개발에도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 원자력

혁신과 확대를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 지속 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의지도 밝혔다.

구 차관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이란 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원자력 시설의 안전·안보, 후쿠시마 오염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IAEA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총회 기간 중에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비롯해 싱가포르·캐나다 등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SMR 등 미래 원자력 분야의 협력 확대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오는 10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IAEA 원자력 장관회의에 고위급 참석을 요청하며, 미래 원자력의 역할과 국제협력에 관한 논의를 한국에서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구 차관은 그로시 사무총장과 함께 ‘한-IAEA 협력 70주년 파트너십 및 미래비전’을 주제로 마련된 한국 기술전시관 개막식에 참석해 한-IAEA 협력 성과와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IAEA의 개발도상국 암퇴치 활동 지원을 위한 2만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구혁채 차관은 “대한민국은 SMR과 해상원자력 등 차세대 원자력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 달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IAEA 원자력 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원자력의 새로운 가능성과 국제협력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원자력연구협력팀	책임자	팀 장	황영희 (044-202-4650)
		담당자	사무관	홍재표 (044-202-4651)

